영감의 메시지
(1974년 11월 3일 브리갈 영 대학교 학생회에서 행한 연설, 채치 뉴스, 1974년 11월 9일, 3페이지)

기도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표적들이 그리스도의 제림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이 회복되어 인간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가 오는 복음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가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바를 피어 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성패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택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성 행복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결의를 갖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정규적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와 힘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직되기 오래 전에 주님께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 요셉 뮌스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우리의가 쇠락 잃을 수 있도록 사탄을 정복하며 사탄의 사업을 막는 놀라운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요성 10:5)

나는 은밀한 기도에는 큰 힘이 있 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가족 기 도와 그들이 갖는 기도에도 힘이 있 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들이 좋아하는 말 을 들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계별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는 절 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와 같은 절손함, 정직함, 빛을 가지고 기도하라로 마음을 떠.defineProperty

당신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우리를가 쇠락 잃을 수 있도록 사탄을 정복하며 사탄의 사업을 막는 놀라운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요성 10:5)

나는 은밀한 기도에는 큰 힘이 있 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가족 기 도와 그들이 갖는 기도에도 힘이 있 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들이 좋아하는 말 을 들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계별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는 절 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와 같은 절손함, 정직함, 빛을 가지고 기도하라로 마음을 떠 судебн

당신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우리를가 쇠락 잃을 수 있도록 사탄을 정복하며 사탄의 사업을 막는 놀라운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요성 10:5)

나는 은밀한 기도에는 큰 힘이 있 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가족 기 도와 그들이 갖는 기도에도 힘이 있 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들이 좋아하는 말 을 들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계별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는 절 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와 같은 절손함, 정직함, 빛을 가지고 기도하라로 마음을 떠 судеб

당신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우리를가 쇠락 잃을 수 있도록 사탄을 정복하며 사탄의 사업을 막는 놀라운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요성 10:5)

나는 은밀한 기도에는 큰 힘이 있 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가족 기 도와 그들이 갖는 기도에도 힘이 있 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들이 좋아하는 말 을 들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계별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는 절 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와 같은 절손함, 정직함, 빛을 가지고 기도하라로 마음을 떠 судеб

당신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우리가 쇠락 잃을 수 있도록 사탄을 정복하며 사탄의 사업을 막는 놀라운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요성 10:5)

나는 은밀한 기도에는 큰 힘이 있 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가족 기 도와 그들이 갖는 기도에도 힘이 있 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들이 좋아하는 말 을 들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계별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는 절 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와 같은 절손함, 정직함, 빛을 가지고 기도하라로 마음을 떠 судеб

당신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우리가 쇠락 잃을 수 있도록 사탄을 정복하며 사탄의 사업을 막는 놀라운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요성 10:5)

나는 은밀한 기도에는 큰 힘이 있 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가족 기 도와 그들이 갖는 기도에도 힘이 있 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들이 좋아하는 말 을 들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계별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는 절 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도의 벗

순서

기도 메리온 지 몽니
2. 어 느 틀이 지고 있음이나 ? 마빈 제이 에서운
5. 에즈라 해당트 벤슨 마크 이 페터슨
13. 자기 책상에 가보음을 첨하는 신교사
15. 말일 손 예이 그린
19. 신권이 내 생애를 이끄는 힘이 되게 하하워드 이 윌리스
21. 해결책을 찾은 헨리토 캐롤 에스 베론
24. 옛 중국의 이야기
26. 깊은 반의 침례 케리 도호스터
28. 속은 그림 찾기 뿌리 케이프너
29. 동물 잘라 워틴드
30. 좋은 습관은 풀 компаний 성품을 낳는다 델비트 엘 스테이플리
33. 나의 놀이공 후에 내 형제를 구경하라 엘 롤 캐리
37. 나의 쉬운 인물의 영예 전당 토마스 에스 몬슨
41. 가장 중요한 지시 로버트 엘 심프슨
44. 사탄을 이기는 권세 엘레비 엘 크리스천슨
46. 선교부장단 메시지 한 인상
47. 내 외소식

대관장단
스피서 아를로 롱브ლ로 엘 엘손 데너 베리온 지 롬바

첩이사도
에즈라 베프트 펜슨 마크 이 페터슨 델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베드 리차즈 휴 비 브로온 하워드 더블린 헨니 고든 비 헨델리 토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페커 마빈 제이 에이런트 브로스 앨 맥콩키 엘 톰 페리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 1975년 5월 1일
매월 1일 발행 등본 118호 발행인 김원인, 월에드워드 브라운 발행인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인쇄본 : 한국 인쇄 출판부 전화: 74-6832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정운동 7 서울 성화문 수도국 사서관 616호 배포국내 : 서울 514091 인베니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진수 경기 전북 1권 150원
1년간(충료 포함) 국내 1.200원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 7 bulb 필리핀, 타오스, 태국 9 볼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14 볼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18 볼 선박 3 볼

1
어느팀이 지고 있느냐?

우리가 음직이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보다 중요하다.

마빈 제이 애슈턴 장로
십자가소도 정원회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해도가 접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음직이 접수보다 중요합니다. 돌기가 접수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직이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보다 중요합니다. "아직 그 마음의 생각이 이어져서 그 위안도 그러하겠네"(잠 23:7)이라는 걸로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자기의 몸에 대해 "비린 몸이라는 곳을 세기고 다니는 천년을 본 적이 있을 수, 그 후에 나는 그를 주 교도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한편은 두 소년에게 수영을 잘 하는 것과 좋은 성적을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소년은 "못할 것이라"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한 소년은 "수영은 못할 수, 해보려고 한 적도 없고."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대답
한 말을 들고 그들의 터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위협할 세상에서 함당한 태도란 가장 값진 소유물입니다. 확신을 갖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뒤처져 있을 수 있으신 옷은 방향으로 전쟁해 나갈 때 경로를 잊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행이 골항 후에아의 행위를 평가하시고 친구를 주시습니다. 우리는 창조하신 분께서는 우리가 친구의 승리를 거두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의 요청에 기꺼이 응하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멈추고 자신이 이곳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갖는 것 은 잘못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하기 위해서 기쁨, 낙관적인 태도, 용기를 갖고 매사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확신에 잃는 태도를 갈등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확신과 절손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확신한 자기 신뢰가 될 때 모든 사람은 그들의 내면에 듣겨날 전개시키고 하신 신성한 잠재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함당한 태도는 우리들을 우여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조화를 이루어 삶의 해답을 합니다. 우리는 자반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기주의자들은 자신이 이미 늘은 위 치에 도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리는 경로로 이르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자의 어리석음에 오는 교통을 문화시키는 마취제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기주의 이반 영혼에 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 가는 때도 과결과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사실보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브러시를 기울이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함당한 태도를 갖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추구하여야 할 태도입니다. 개인의 긴밀한 태도란 일순간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우리를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함당한 태도는 우리에게 자기 수련과 자신을 차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느님의 말씀의 말씀도 아래와 같은 것을 차지해 있습니다.

함당한 태도는 우리에게 자기 수련과 자신을 차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느님의 말씀의 말씀도 아래와 같은 것을 차지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 주셨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강장하고, 도망이 있으며, 참된 마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도움에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풍물도 비수당할 수 없으며 의지와 주권을 지니고 있고 영예를 사랑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함당한 태도란 은총한 일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는 함당한 태도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인간의 지식,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초 영역에서 요셉 스미스가 해롤드 비니라 스미스의 빈손한 교훈에 대해 갖는ся 사실을 응감하게 발일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요셉 스미스가 보인 불굴의 의지와 태도를 감사 삶의 보조입니다. 그의 의지에서 그의 태도를 나타내는 음식이 아직도 것전에 음식이 보일 것 같습니다.

“나의 경우도 그와 같았습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길 가운데 두 분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지원을 보았다고 말하여 마음과 밖을 받는다고 할수도 이들은 사실 그대로이며 내가 이린 말씀을 하여 사람들로ぞ울고 정박하고 나에 대하여 모든 거짓으로 말할 때 나는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나를 정박할까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이 말씀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으며 왜 세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참으로 본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일까? 나는 분명히 지원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 며 하나님도 알고 계신이 내가 알고 있기에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거절하는 일이며 경정을 받은 일이 일부분히 알고 있었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2:25

함당한 태도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변화에 대처하기 나가는 농담입니다. 적응 능력의 변화와 신심의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사람은 우리가 시험과 비극에 처했을 때 폐한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두운 밤을 보낸 날로 바꾸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가고 사람이 경멸으로 중요한 경 기에서 승리를 향해 진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요 기
今日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さておき、今日の一日は、まず、各一覧あるけれども、最後にしてないもの、次々と関係ないものだ rencontrer.
에즈라 테프트 벤플
고결한 성품을 지닌분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신이사도 정원회

국가의 공직 생활,교회에서의 헌신,가족의 단
합을 위한 노력 등으로 신임 심이사도 정원회
회장은 남다른 특성을 보였다.

발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심이사도 정원회
를 관리하도록 에즈라 테프트 벤플 회장이 부임을
받은 것은 그의 폭넓은 경력을 보아서는 물론 교회
역사상 획기적인 이정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이 서거하시고 스펜
서 더블류 커뮤니티 대관장님이 교회의 대관장이 될 때
이 직책에 거치되었습니다. 그는 1973년 12월 30일
커뮤니티 대관장에 의해 이 직책에 성임되었습니다.

그가 부임받음으로써 주님의 왕국을 이끄는 지도
자이 대장에 또 남다른 재능과 업적과 운명함과 결
손함과 주님에 대한 헌신을 지닌 분이 서게 되었습
니다.

교회 역사 144년 동안 이 직책을 맡은 사람은 81
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임이 가져다 주는 영예는 그에 따른 책
임으로 알 수 있으나, 심이사도 정원회를 관리하는
데는 막중한 책임과 의미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이사도 정원회란 특별한 조
직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시대에도 그러
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이 정원회의 시대에
이 정원회를 조직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
니다.

심이사도 정원회에 속한 형제들은 세상 어느 곳에
서도 볼 수 없는 강한 유대와 형제애를 빚고 있을
 riêng 두 명인 이들 형제는 주님으로부터 특별
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
적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선
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실천하고 있음
그외에 중요한 삶의 기회를 얻 세상 사람들에게 일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성스러운 사명을 받은 이들은 마음과 행동으로 군계 동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 사랑처럼 움직입니다. 그들은 한 사랑처럼 느낍니다.

이 미래의 일에 종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심이사도는 그리스도의 매언에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계획 이상의 일을 해냅니다. 그들은 매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받으키, 결코 내가를 바라지는 않으며, 필요하다면 건강과 재산까지도 죽게해 짊기를 거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교정 27:25) 하나님 왕국 건설에만 전력을 다 쏟고 있습니다.

벤슨 회장은 바로 이러한 헌신의 모습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는 세 가지 분야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첫째가 교회요, 다음이 가정이며, 세째가 국가입니다. 벤슨 회장은 헌법의 보존을 위해 열심히 자신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우어 대통령이 내각에서 임기를 맡게 된 것도 이러한 헌신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 임기를 받아들이도록 웨이비드 오 맥케이 대통령님이 그를 격려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전 경력을 살펴 볼 때 영적인 성품이 그가 행한 모든 사업의 중심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행정부의 활동에도 영적인 성품은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가 교회의 일로 봉사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의 훌륭한 가정 생활에 빛나 활기를 준 것도 그의 영적인 성품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때에도 그러한 성품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의 심이사도, 에드와드 페퍼포드, 마크 이 베리슨, 엘버트 월 스테이플리, 할 로드리그 빌리, 울프 플마다, 오버 비 풀리, 로버트 믹스 몬순, 보이드 케이 페어, 마틴 케이 애쉬, 브로스 앨 펜더, 엘 정 페리

출드레이크사티 집의 일에 체 취한 벤슨 회장과 부인 타이자 줄한 벤슨 회장 부부

발견한 벤슨 지역에 함께 참여를 하는 많은 벤슨 사람
벤슨 장관은 농림 장관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호루시쵸프 수상 및 고위 정부 관리들과 회담을 한 적이 있었었습니다.

벤슨 장관은 일상의 기자들과 함께 어느날 모스크바에 있는 친해 교회를 찾아 갔었습니다.

그 큰 도시에서 그때까지 존재해 있는 몇개 안와는 교회였습니다. 회중은 주로 연로한 노인들로 여자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 오자 회중들은 놀란 표정이었으며 눈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한 미국인이 연단으로 초대되었습니다. 말씀을 하도록 부탁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벤슨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긴란 간회에 젊어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심다. 나는 그분이 살아 계실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이며 세상의 구속주이실을 알았다고 그는 간증하였습니다.

그의 말씀이 로시아어로 통역되었습니다. 맨이 끝날 때마다 회중에서도 참으로 그분의 정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얼굴 가리개를 걸으며 눈물을 틀었습니다. 남자들은 얼을 볼 수 없도록 흐르는 눈물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장관의 수행 기자도, 마지막에 이곳까지 동행해 온 많은 강정청의 기자들도 처음에는 이와 같은 종교 정회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회중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로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은 부드러웠습니다. 모두가 젊어 보지 못한 뜨거운 영을 느꼈습니다. 모두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경순히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기도를 확실히 믿습니다"하며 장관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용기를 주시는 보이지 않는 힘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로 사랑하십시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시오. 엘레가는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 오지와와정 반대의 표정으로 조용히 예배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이들이 목도를 지나간 뒤 반가와하며 아쉬워하는 그곳 성도들의 손길과 마음이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 성도들의 입에서 이 세상에서는 민첩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어지는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이라는 친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젠하우어 대통령이 그의 첫 각지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는 막강한 그의 참모진을 보고 큰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곧 그 미소는 엄숙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처리할 막강한 국가에 하나님의 가호가 있어야겠다고 말하고 농림 장관에게 첫 각료회의를 기도로 시작하자고 부탁하였습니다.

매우 놀랐으나 정부 일에 영적인 요소가 결들이게 된다는 것을 감각하게 생각하며 장관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영감에 찬 헌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생활을 인도하는 원리와 복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다시 새로운 행정부에 진정하신 하나
님의 인도와 지도가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각의 배는 물론 농림업의 정책에서 기도를 드리는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농육의 연방 내부 은행 회장 정 책임자들 농육 코바 데라 농대학장이었던 웨리엄 아이 베이어스씨는 빈센 회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즈라 테드 벤슨씨는 고결한 성품으로 평생을 일관해 온 분이며.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의 이찬사에 모두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성실을 높이 평가하시는 분에게서도 그는 폭넓은 우정과 이해에 잘 마주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지니는 분으로 능평가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아이작후부 대장관은 만한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그를 새로운 행정부의 중요한 부서에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에즈라 테드 벤슨 회장은 매우 특별한 분임니다. 그와 같은 분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비평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의 전생애에는 위대한 모범을 보인 생애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순수한 동물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이들 이루어진 사명 없는 소망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공직을 수행하면서도 그가 이끄는 신앙의 이상을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과 함께 나눌었으며, 이 일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왕관러브로 살도록 노력하였으며, 나아가 자기에 해주기를 바라는 데로 날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도 훌륭한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고”(요한 4:5) 있으며 자녀들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십시오.

벤슨 회장은 어릴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식을 거듭하게 저어 온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인식을 거듭하게 저어야 한다고 믿닙니다. 나는 인식을 성실하게 저지릅니다. 나는 어릴 시절부터 인식을 거듭한 날로 저쳐야 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이 없는 모범과 전교를 통해 배우게 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손자들이 인식에 관한 하나님의 신학의 지지에 충실히 따르는 것을 감사하여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의 인식일에 대한 나의 추억은 기쁘고 즐거우며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었습니다.”(1972년 2월 10일 신원 역의회 모임 말씀)

벤슨 회장은 어릴 시절부터 이 원리를 지켜 왔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는 이 원리를 따라 그대로 삶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많은 역경도 다 견뎌 왔습니다. 그는 젊은 선교사로서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했습니다. 그는 가로로여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농무성 주관회사에서도 수차 공격을 받았으나 그 뒤마저 그의 평화로운 의지와 열렬한 응원으로 반대자들을 조용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비심과 분별력에 없는 정적으로부터도 심한 공격을 받았으나 그는 고결한 성품, 진리에 대한 사랑, 진리가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속한 종으로서, 현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사회 정년회 회장으로서 그는 젊은 시절에 배운 이성을 그의 인생의 화목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훌륭한 경력을 가장 놀라운 점은 하나로 그가 그의 가족에게 보인 곤경하고 변함없는 충성심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유대를 보기는 쉽지 않 것입니다. 벤슨가에서 입증된 그의 유대를 다른 어느 가정에서도 임자리 볼 수는 없습니다.

알 엘론 테니 부부間違い이 그의 가정에 관련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하겠습니까.

“나는 에즈라 테드 벤슨 형제님을 자가 올라 고 생각할 일을 용감히 능력껏 해비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벤슨 자매보다 사기적이며 사랑에 찬 여머니와 아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의 자녀들보다 이 유능하고 충성심이 높고 단결한 자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력하고 효과있게 복을 사업을 떠나고 있습니까. 그는 신학을 가르치고 지도를 키우며,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결손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파편 우리 중에는 이처럼 훌륭한 분이 이룬 큰 업적을 이루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소련을 공식 방문 중 본은 장관을 찾은 장관 부처와 두 달 미비리와 보니.

1959년 10월 1일 모스크바의 실베 교회에서 연설을 하는 엔슨 장관.

드와이트 디어스 백악 공화국 대통령 내각의 동률 장관으로서 대신원장 앞에서 전서하는 모습.

동률 장관으로 훌륭한 방향을 성도들과 안

1951년 미국 소년단 최고의 영예인 실비야랑 로상수 수상하는 장관.

엔슨 자장과 그의 첫 선교 동반자가 엘렌 형로 에스 그레이 장로
이제 몇 가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는 출생시 하마터면 복숭을 잃을 빼냈다 가 하늘의 기적으로 생명을 건겼습니다. 그는 열 항
명의 자녀 중 맨이로 단부 아이라호주의 농장도 말
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학자와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후에도 계속해서 학문에 정진하였습
니다.

결혼이어서 그는 농사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30
대에 아이라호주 보이즈에서 스테이크 부양이 되었
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국립 농업 고문 위원
회의 일원이 되었고, 그 후에 국립 농업 협동 평
의회 집행 역임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영국 런던
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 농업 기구 대회에 미국 대
표로 참석되었으며, 1946년에는 밴마크에서 열린 국
제 공업 모임 미국 대표단 고문을 맡았습니다. 그
는 미국 협동 기구 이사회의 의장을 역임한 바 있음
니다.

1952년 50세에 그는 아이젠하우어 대통령 내각의
농업 장관이 되어 8년의 재임 기간에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교육 부문에서 놀라운 업적을 보여 주기의
면에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외에도 많은 특별 상
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농학과 농학
원에서 받은 자신의 학위 외에 따로 받은 것이였
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님이라고 어느 훌륭한 지도
자반 강당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벤슨 회장은 1899년 8월 4일 아이라호주 휘트니
에서 조지 터 벤슨 이세와 사라 덴즐리 벤슨 아들
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열 한 명의 자녀 중 맨이었
습니다.

그는 출생시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의 산모의 생명을 걱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
기에게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신앙, 신권에 의한 병자 죽복, 더욱 물과 같은 물에 변
가해 가면서 나를 낳은 두 할머니의 체력의 행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환상을 안겨주었습 니다.”

세로 태어난 아기는 1847년 7월 24일 첫 개척자
들과 함께 슬로베이크 계곡에 온 중종부의 이름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는 4세 때 처음으로 마차를 몰았으며, 농촌에서
자랐으므로 많은 농사 일을 다 맡아 해졌습니다. 그
는 일의 의미를 바쳤고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부
지런한 성품을 입증해 주는 일로 그는 16세가 되는
 어느 날 허울만에 혼자서 사탕수수밭 1에이커(약
1224평)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의 매가로
12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과 학업의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항상
수프를 즐겼으며, 농구와 야구는 그가 가장 좋아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시절을 아이라호
주에서 자란 해플드 비리 대학과 함께 야구를 하
면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어떤 시절부터 첫만한 사
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라호주 프레스턴에서 오래난 스테이크
아카데미에 다녔으며, 온 것이 좋은 날이나 마
차를 타고 학교에 갔으며 저녁에는 셀레비를 타고 다
났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는 유바주 보간에 있는
유바 주립 농업 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여기에서
벤마크가 주학한 시계 제조업자이며 유바 가척시 보
석상을 한 벤마크 귀족의 자손이 아무런 프라 아
무센양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보간 학교에 있던 벤슨 장로는 제1차 세계 대전
말 군에 입대하였으며, 1918 전군을 함군 유행병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 해 가을에는 사탕수수를 거두어 들이는 데 일
손이 크게 모자랐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토요일에
이 일에 참여하도록 휴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금요

벤슨 회장이 사또로 선탄됨 당시의 십자차로, (앞받 좌서 우로) 스티
본 엠 터차, 조지 엠티 스미스, 조지 엠티 터차, 조지 엠티 스
미스, (앞받 좌서 우로)예즈나 베르트 벤슨, 스테리서블루 헴블, 헴
블드 비리, 베르트 이 보우타, 찰스 에이 패리스, 조지 에프 메릴, 존 에이 윌소, 리차드 딜 라이만.
일 아침 펜슨 장로는 결심한 필요를 느껴 하루 일
적 고향으로 떠났으나 고향 집에 돌아 온 직후 유
행성 독감에 걸려 가족의 간호를 받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막사의 양 옆에서 자는 그의 친한 두
동료는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었습니다.
1921년부터 1923년까지 그는 영국에서 복무하였
입니다. 그는 귀국하여 브리간 경 대학교에서 학업
을 계속하였으며, 1926년에 명예의 훈장을 수여된
아이오아주 아메리카에 있는 아이오아 주립 대
학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안 프라라는 하와이 선교부로 부름을 받
고 떠났으며, 동안 펜슨 장로가 학업을 계속하는
동안 선교사로 부상하였습니다.
1926년 9월 10일 프라시미스 아우세프 에이카
테프트 펜슨이 싱가포르 올바고 푸트니 장로
의 주변을 솔트레이크시의 신전에서 결혼식을 올렸습
나. 펜슨 회장의 출생지인 아이오아주 푸트니는
뷔타니 장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1927년 그는 아이오아 주립 대학에서 서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두 부부는 아이오아주 푸트니의 농장으로 이사갔
으며, 여기서 농사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는 그
의 동생 오바게와 함께 1923년 농장을 매입하였습
나. 그 해 가을 오바게 레마크로 가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농장의 수입으로 재정 지
원을 받았습니다.
1931년 그는 새로운 조직된 아이오아 대학농업 경
제 및 사장과의 새 과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1933
년 그는 보이즈 스테이크 부상단의 일원이 되었으
며, 그 해에 아이오아 회의 평의회의 사무장으로 임
명되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그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6년간(1933년부터 1939년까지) 보이즈 스테이
크 부상단의 일원을 역임하였으며 그 기간 캘리포
니아 대학교에 나가 계속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1937년 보이즈 스테이크 부상이 되었으며, 그 직책
을 2년간 역임하였습니다.
1939년 그는 미국 소년단 평의회의 일원이 되었으
며 국립농업협동 평의회의 사무장으로 지명되었습
나. 이 직책에 부름을 받아 그는 왜싱턴 더 시
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갔 1년만에 그는 왜싱턴 더 시에 새로
조직된 왜싱턴 스테이크의 초대 스테이크 부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로 가장 큰 부름은 1943년 7월 26일
히비 세이 그랜트 대통령으로부터 교회 심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명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1943년 10월 7일에 대회에서 그 직책에 지지를 받았
습니다.
다음 해에 그는 미국 소년단 평의회 위원이 되었
으며, 1945년에는 소년단 12지구 집행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었고 후반에 회장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무렵인 1946년 6월 15일
그는 영국 린던에 본부를 둔 유럽 선교부 선교부상
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특별한 사명은
선교부를 세계화하고 전쟁에 치면 유럽의 성도들에게
정신적인 양심을 들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영국 린던의 교회에서 미국 정
부에 부터 제1차 국제 혁명 기구 대회에 미국 대표
로 참석하려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유럽에서의 교회 봉사가 그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여정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6년간 전쟁 기간에도 흥미 삶아
은 성도들의 참 모습을 보았으며, 유럽에 다시 한
번 평화가 완복될 때까지 이들에게 의숙한 전달
해 주는 도구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그는 필랜드를 복음을 전할 땅으로
현나하였습니다.
1년 후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1952년에 새로 신설된 드와이트 더 아이케이하우
대통령은 그를 농림 장관으로 불렀습니다. 이 문제
를 레이미드 오 맥케이 대장관과 상의한 그는 대장
관의 격려와 축복을 받은 후 수락하였습니다.
이 직책에 부름받은 그는 빅슨 가문은 미국 정부
를 대표하여 농업 문제로 전 세계를 두루 다녀들으
다.
1961년 1월에 8년간의 장관직을 마치고 솔트레이
크시티로 돌아와 싱가포르 교구의 일원으로서 임
무를 받았습니다. 1965년 1월 4일 그는 위대한 미
국인의 영예 전당에 이름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다시 유럽 선교부상으로 부름을 받아 득
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봉사하였으며 1965년 10월 임기를 끝냈습니다.
그는 신학교육 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을 위해 세계 수많은 나라를 두루 여행하였습니다. 1961년 야공의 여행 중 그는 성가들과 민요네비아를 복음이 전파될 땅으로 현장하였습니다.
1971년 그는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임진군 주복사의 전국 2,500주년 기념제에 교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28개의 종파 대표가 초대되어 참석하였습니다.
가정의 사랑과 유대는 벤슨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벤슨 형제나 자매는 모두 훈련한 부모에게서 배웠으며 젊은 시절에 받은 가정 교육의 전통은 그들이 이룬 가정에서 크게 나타났습니다.
언젠가 벤슨 회장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실천에서 오는 왕관한 가정의 사랑과 충성심과 유대가 우리 가정을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녀와 그들의 반려자와 가족이 모두 그렇게 의료로운 생활을 통해서 큰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발, 가족 희생, 가족 기도, 가족 경건 공부를 하면서 교회의 프로그램을 따르며 가족 모두가 신앙과 간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의료로운 가정 생활과 조화를 이루면서 48년간 행복하게 살아온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벤슨 자매는 이러한 축복이 있더라고 통나무 집에 살아도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아내에게 큰 의미를 덧붙여 주는 것이 못됩니다.
신뢰와 지도자에 대한 존중심을 우리 가족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습니다.”
또 한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싸우거나 화를 내는 소리들에 어울리지 않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감사로써 이들을 가르쳤고 시간을 내어 경건을 얻어 주거나 문제를 토론하거나 서로의 도움으로 이로운 것을 얻을 수 있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가족은 모두 마음속에 똑같은 일생의 목표를 지니 왔습니다. 이 목표를 복음대로 살며, 가장 중요 한 일로 교회와 가족과 가정을 생각하고 항상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벤슨 형제의 자녀는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아직도 부모에 대한 관심이 지지하며, 부모는 꼼짝 이들이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와 같이 훌륭한 발일성도와 훌륭한 시민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모범으로 보여 주는 가정을 사랑스럽게 여기었습니다.
벤슨 회장과 자매 사이에는 6명의 자녀와 31명의 손자가 있습니다.
예브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부름을 받아 봉사한 직책에서 임기를 마치고 나면 그가 교회의 직책이전 공직이란 간에 안료를 위해 보인 그의 평생의 헌신에 대해 무한한 찬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한 찬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944년 1월 5일에 개최된 전국 대표 기독회의 대표자 연례 모임에서 자진적으로 제출된 결의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를 처음 알게 된 이후 줄곧 우리는 그의 활동 분야에서는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유능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임을 알아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열정적인 힘에 이끌렸으며, 전국의 농부나 그들의 기구가 덕분해 큰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며로 대비해야 했던 이로운 양서 천 애를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그의 성실성, 무한한 능력과 정직성은 우리 뿐만 아니라 그를 미치는 사람이나 누군가 그를 우러러보게 하였습니다.
심이사도 정원회의 모든 사람이 갖는 헌신 없는 사랑과 높은 존경심은 평생토록 그가 가는 곳을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무한한 만족감을 그가 갖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벤슨 회장과 자매의 평생을 회고하면서 벤슨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동반자와 함께 살아온 48년의 결혼 생활과 신전 결혼한 자녀와 31명의 손자와 영원한 행복의 복음을 통해 오는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벤슨 가족은 발일성도의 이상적인 모범을 보인 가족임에 틀림없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아들 테셀은 신경질적으로 친교에서 몸을 위치락거려서 돌아녕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피로와하고 있었 다. 그는 고향을 떠나 와 혼자 있 기 때문에 외로웠다. 그는 고향인 노르웨이의 스티리건을 떠나 베르겐시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도살장에서 일하고 있다.

"난 정말 인간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었고, 정치에도 혼돈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곳에 누운 체로 무언 일이든 온은 일을 찾으면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온은 방법을 알거마 하였으며, 인생은 좀 쉬워졌을 것입니다. 그 리그가 어디서 나왔든 나는 꼭 받아들이어야 할 했고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무엇이 올고 무엇이 그린가를 생각하려고 했지만, 그의 형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친구와도 이야기를 했으나 아무도 그에게 바른 길을 가리켜 주지는 못했다.

베일 저녁 그는 속죄에 나가서 정치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밤 나는 술을 마시며 나왔다가 좀 일찍 잠에 들어 가야 했어요. 뒤에 누워서 나는 두 명의 외국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네 아파
트 근처에 사는 것을 알아 그들에게 영어로 맛마디를 올려 보기로 했으나"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숨을 내며 숨을 먹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들이 지혜의 말씀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해 주려고 해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는 그 것이 나쁘다고 느꼈기 때문에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운동을 좋 아했고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나는 정말 어 떻게 그런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걸 몰랐고 생각할수록 내 자신이 어려서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계속해서 커피를 펼쳤습니다. 다시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그 잔을 받아마셨습니다. 나는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건을 하지 않았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예일을 회수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금식 간절히에 참석하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어나가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려ませんでした"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몇 주 후 선교사가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그는 "세밀하"라고 내강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 말 쓰드렸습니다."라고 그는 선교사에게 말했습니다."줄 생각해 보고 마음속으로 아무런 거리낌이 있는 지를 확인해 보아야겠다요.

"3개월 후 나는 선교사를 만나 훈련되었습니다. 말하기로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께 말하기도 하게 벌써 그들이 내게 묻었으며 나는 죽지지 않은 동의 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찾고 있던 진리를 찾았으며 생명도 완전히 바뀌 었고 좋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집에 오면서 버스 안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은 나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가 정의 밖에 있어서 가르쳐 주었고 함께 그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 를 움직인 길로 인도했고, 나의 기적이 이를 마다하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문 아들은 주일학교 제2교사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1년 만에 장로가 되었고, 옆 선교사로 부임을 받아 그의 나라인 노르웨이에서 복무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 송데이터 선교사로 건강한 고요한 배경을 얻어가기로 했다. 그는 열성적이 고 능력 있는 선교사였다.

그는 선교사로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노르웨이에서 노 르웨이인 선교사로 복사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조 국과 국민을 잘 알고 이해합니다. 내가 남의 집을 두드렸을 때도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같이 보였습니다.

"스페인에서 빈물과 검은 빌가ordial 시는 모든 나라가 자주 선교사를 배출하도록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나는선교사로서 노르웨이를 대표하게 된 것을 잊지 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에이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말 일

존 에이 그린

자동차가 빠른 길목을 돌았으며, 운전하는 사람을 서서히 차를 돌면서 검은 색 건물 들의 주소를 살폈습니다. 바로 3번지로 찾 아났습니다. 자동차는 곧 멈추었습니다. 잠시 동안 운전해 온 사람은 향을 잡은 제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르다리에 있는 젊어서 파리에 있는 이
곳까지 오는 데는 한 시간 반이 쏙 졌었어요. 그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할까요? 무어라고 말할 까요?

"저는 알베르 투스퍼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발일’이라는 말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

가장 적절한 방법이겠으나 좀 이상하거나 당황하지 않으려고요?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어요.

"저는 출판사 대학 음악 학교입니다. 저는 알베르 투스퍼라 하며 최근에 교회에 관해서 홍미로운 기사를 읽어 이렇게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문에서 대담하는 사람이 누구를 먼저 본 다음 할 말을 결정해야지.

알베르 투스퍼는 차에서 내려 눈으로 걸어 가 볼을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그를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로 교편을 잡으러 가기 몇 년 전만 갔어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는 교회와 접촉을 가질 수도 있었으나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의 생활에 하나님과 교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우연히 도도의 봉을 보게 되었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후에도 다른 그룹들이 그를 도와주는 성경에 관심을 갖게 했으며, 다른 교파의 목사들에 의해 성경 강연회가 그에게 더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발일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인물에 관계 없이, 그는 인간의 역사가 인류의 발달이 결정적으로 필요하고 인간이 사 대와 그의 운명에 대해 잘 알아야 할 때 시대이 어둠속으로 자취를 가추고 배움이나 성찰한 자가 혼돈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언자들은 스스로 그들이 보아 모든 빌어 쌓은 비중으로 확신을 갖고 이 야기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알베르 투스퍼는 인간의 미래가 말일부터 구세주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재림까지 상세하게 예언되었다는 점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언자들은 영성의 변천 과정을 예견하고 이를 설명하였으며, 특별히 두 개의 사건을 큰 정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천위 하나님 왕국을 세우신 때이며 둘째는 그리스도의 제림 직전 발일이라 그 일부를 말합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영적인 상태의 최고봉으로 발일이 이르기 전에는 다시 느끼 볼 수 없는 때였습니다.

알베르 투스퍼의 마음을 끌 것은 음악사의 변천 과정으로, 이를 주의깊게 관찰해 보면 사람은 음악이라는 예술에서는 현저한 기록의 흐름을 예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예술의 정착과의 사이에 가까운 평행선이 있음을 발견하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경상의 예언가 예견한 바를 뒷받침해 주고 확인해 주며 설명해 줄 음악학적인 예언의 신을 바로 그 평행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음악이라는 예술이 사회의 영향, 관심도, 승리와 실패, 약등을 반영해 주며, 성경상의 예언이 이미 오래 전에 인간에게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증하였다 생각했습니다. 알베르 투스퍼에게 인간의 영적인 진보가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인간의 사회적 예술적인 진보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평행하지 않아 할까요? 인간의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예술적으로도 진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많은 의문을 가졌으며, 담을 연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 1970년 4월에 “인류사에 나타난 음악사적인 예언”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연구를 출판사 대학음악학회 논문으로 제출한 예정이었으나 이 주제가 너무 정통적인 면에서 빼앗겼고, 학계적인 면에서도 거리가 있으며, 이에서 오는 논란에 대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유명한 불란서의 육계 연주자이며 작곡가인 올리비에 메시앙은 알베르 푸스터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사를 써 주었습니다.

“본인이 이 책의 서문을 쓰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자가 쓴 몇 가지의 내용 중 일부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음악에 관한 것도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와는 일치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인의 제자로 파리 대학 시절 음악 이론반에서 수학한 음악도였으며, 내가 이 책의 서문을 쓰게 된 것도 그에 대한 사랑에서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아닙니다. …본인은 음악사와 그 진보 과정과 인류사와 인간의 칼럼, 병망, 형벌, 부활부를 선언한 경전상의 예언과를 비교한 본서의 내용에서 의의의 일치점을 보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를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책이 나왔다는 놀라운 사실에 있습니다. …말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내용을 읽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인이 서문을 쓴 이유도 그런 데 하겠습니까.”

그러나 동안 알베르 푸스터는 교수들의 학계적인 전통에 맞게 제작적인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 다른 논문 제목을 계발하여 택하였습니다. 그는 “베를리오즈의 극장”이라는 제목을 택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그을 남겨 두고 남을 수 없는 특별한 역사의 한 시점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인류사에 나타난 음악작품 예언”이라는 책을 쓰는 동안 발견하게 된 사실로, 만족스런 내용을 찾지 못하던 그에게 큰 의문점은 주었습니다.

요컨대 그것은 말안에 관한 것과 영적으로 캐우쵸이 일기 시작한 말안의 초기에 관한 것으로, 경전의 예언자들이 분명하게 설명한 영적인 풍성한 음해의 세부고도 최초적인 기회를 의도한 것이나 이 배를 증가한 구체적인 날짜는 물론 언급이 없었음

이제 알베르 푸스터는 경전을 연구하고 “인류사에 나타난 음악작품 예언”이라는 책에 언급된 음악적 “예언”의 기원을 조사해 가면서 놀라운 영적인 캐우쵸이 1798년과 1844년 사이에 어디선가 일어났으며, 그 기간이 전통을 파괴한 대혁신의 시기를 확실히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마땅하나 그 사실을 증거할 만한 놀라운 영적인 시험이 어디어서 있었을까요? 그의 신망의 친구는 1884년 영국 과 그의 나라의 성서 협회가 경전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하고 구라파도 이와 비슷한 그룹이 조직된 것을 들었고 그는 찾는 문제의 해답이 되지 않느냐고 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러한 설명을 하였으나 이것으로도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경전을 사용하였으나 그러한 경전의 단순한 번역이 그가 이해하는 말안에 있을 때면 영적인 캐우쵸이 되지는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구라파는 수 세기 동안 경전을 고수해 왔으나 구라파인들은 경전이 묘학하는 바와 경전에 대해서 그들이 위해서 할 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구라파가 다른 대책에 보다 새로운 성서 번역이 이를 받아들인 나라에 영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이나 거기서와 똑같은 논쟁의 복제를 낳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라파에서는 언제 그와 같은 영적인 캐우쵸이 중단하였을까요? 그러나 이해하는 바로는 위대한 영적인 캐우쵸이를 24장 14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동시에 있게 되며, 요한이 요한에게서 11장 3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예언의 원천이 회복되는 사실이 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베르 푸스터는 두 번째 논문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하였으며, 주님께서 1798년과 1844년 사이에 어떠한 방법으로 그의 영과 법을 모른 나라에게 내려 주시며, 어떻게 예언의 원제를 회
복해 주시나를 알아내고자 하는 소망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지 몇 년째 되던 해에 그는 물론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겨울에 그린 기사를 읽은 적이 없었고, 그 기사가 그렇게 유익한 것도 아니었습니. 당시 그는 그들을 이상한 미국인 집단 정도로만 간주하고, 몽 이들에 대해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월 전에 같은 군론에 대해 또 다른 기사를 읽게 되어 군론과는 두 번째의 접촉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사에서 그는 이 조정의 정책 평가로 발발이던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발발이"라는 말이 알베르의 눈에 크게 들어왔고 그는 기사에 서부터 르베르로 3번째에 있는 교회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서 그가 이곳에 찾아 왔고, 벌을 높였으며, 그 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몹시 공급해 여기게 된 것입니다.

문이 열렸으며, 알베르 루스프는 안으로 안내되어 왔습니다. 그는 현재는 지역 대표로 있는 스미스 비그림 신학교장에게 안내되었습니다.

알베르 루스프는 쉽게 본론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는 "발발이"라는 말에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연구한 결과 경험이 예언된 위대한 영적인 개우치이 1795년부터 1884년 사이에 일어났으며, 그 배를 격추하여 예언의 현실이 확대화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발발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지 않나 공급해서 찾아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곧 알베르 루스프는 1820년 요셉 스파이와 나타난 첫 번째 사례와 하나님과 교회사에서의 그의 부품, 복음의 회복, 1830년 4월 6일에 있었던 발발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조건, 1844년 요셉 스파이의 손에 관한 이야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발발에 모든 세상에 왕국의 복음은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알베르 루스프는 모든 사실이 하나로 키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의 큰 의문들이 잦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마치면서 그는 영적인 개우치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예언의 본체가 확립되었으며 이러한 메시지가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그에게 증거해 주었다고 간주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참된다는 확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급속히 가도를 한 끝에 그는 1971년 4월 24일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베르 루스프는 지금은 교회의 장로이며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최근에 개종하여 그들은 복음 안에서 자녀를 기우고 있습니다.

알베르 루스프는 마침내 "베를로우 극장"이라는 단어를 끝마쳤으며 이곳에 1973년 솔본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약간 수많은 놀라움이 있었으나 그가 고요에 속 한 목회자로서 콜출산 할 예정이며, 현재 그는 독일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그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였고 그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느낀 작품이며 메시지를 입니다.

고인이 되신 존 에이 윌로 장로에게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비유를 줄어 디워용하였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로 만든 그물과 같으니... 세상 곳에도 이와 같다...(마 13:47-50) 알베르 루스프는 발발에 복음의 그물에 걸린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성경에 대한 간주와 그의 개종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과 오늘 이나 영원히 같은 분이" (니에 29:9 참조) 많은 예언자에 의해서 예언된 영적인 개우치이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사할 주님의 선택된 자를 모으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곳에까지 퍼져 나가고 있다는 많은 놀라운 증거의 일부입니다."

존 에이 브리 박사는 브라질 임 대학교 브라질본부 교수이 다. 그는 오래 3800대 교사가 있는 학교처럼 오랜 유투 사혼 스테이크 주일학교 입원이기도 하다.
신권이 내생애를 이끄는 힘이 되게 함

하워드 이 윌리스 클러서 하스턴 그림

내가 처음으로 신권의 권능을 느꼈을 때 나는 신권이 무엇인지 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
나는 크레메트 장로와 세레트 장로가 블랙비드 크리크에 있는 두 칸짜리 방이 있는 집에 찾아온 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장로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도 잘 몰랐으나 어쨌든 그들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설교를 하여 주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했다. 얼마 동안 시간이 호른 후 형선 보비와 누이인 도리스, 동생 버논과 나는 친해를 받게 되었다. 장로들은 친해 의식을 베풀기 위해 우리는 오글라호마 부서로 떠났다고 갈라.
나는 이들 장로들을 믿기 위해 문에 친해를 받는 것에 두려움 느끼지 않았다. 친해와 확인을 받고 나니 가파리가 매우 좋았다.
그 다음 한 해 동안 크레메트 장로와 세레트 장로는 인디안 학생 배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클로라도 데비로 갔 수 있었으나 몸을 기울였다. 버스가 떠나기 이틀 전까지 나는 마을을 가토로 잠가지 못하고 있었으나 마침내는 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래서 어머니는 아주머니에게 가서 작년 가을을 먹어 오셨고, 사쓰와 양말과 집 주소를 적은 편지 봉투 2개를 넣어 가지고 선교사와 함께 버스를 타고 떠났다.
인디안 학생 배치 프로그램으로 생활한 지 일 년만에 나는 신권을 받게 되었다. 양부이신 감독님과

함아버지께서 내가 10월에 있는 대회에 참석하기 전에 신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하셨다. 대회 때 나는 전체 신권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우리가 데비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성찬을 전달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받았다. 나는 성찬을 전달할 때마다 갖는 느낌을 설명할 수 없으나 항상 좋은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 해에는 성찬 전달을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러한 훌륭한 느낌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여겼다.
나는 집사 정원회 회장단 보라로 봉사하였고, 정원회 회장 임도 맡아 하게 되었다.
학기를 마치고 나는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교향에 돌아왔다. 개학을 앞두고 내가 떠나기 직전에 동생인 링컨이 다리에 염증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나는 병원에서 그에게 직접 인사를 하고 데비로 떠났다. 어머니는 양모에게 링컨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편지를 보냈다. 다리의 염증이 이재는 빠르게 치료를 받았고 아픈 데도 점차 넣어서 되게 되었다.
어머니는 링컨이 오른쪽 다리 정관 수술을 받기 전에 가족과 다نصر에 가서 아오며 보살핌을 받는데 주말에 집에 오겠다고 말했다. 우리 집에는 건강이 없기 때문에 양부는 우리 집에 담당 치료를 보내어 동생 링컨이 수술을 받기 전에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축복을 받도록 하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장로들이 금요일 저녁에 찾아와 링컨이 건강을 회복하고 다리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름 축복을 하였다.

* 교회는 인디안(아메리카) 카나이의 학교들로 다니는 동일한 성지가 있는 편지라고 삼림을 가지고 다니며 가로채가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은 내용의 전지를 어머니로부터 받았다. 멜createView은 어머니의 손이었으나 장로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전기의 충격과도 같은 느낌이 그녀의
를 스쳐 갔음을 아예도 기억하고 있다. 멜createView는 필요질 아침 입원했을 때 의사들은 절반 부분을 정확
히 알아 보기 위해 액스레이 사진을 활용했다. 그들은 잔뜩 놀라며 말을 물었다. 그들은 아 capacité가 활
히 나아가 아닌 흔적조차 볼 수
가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장로
의 축복에 관해서 의사에게 이야
기를 하는 동안 멜createView은 기 nouve라
다. 우리나라 가택서 어릴 줄 몰랐다.

나는 그녀의 성장 와 함께 나아가는
비밀의 일요일 아침 신청 교사로 성
맞았다. 교사는 엄청난 힘을 받았으며 어린
생년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배웠다.

열 다섯 살이 되는 해에 나는
축복을 받았다. 이것은 나의 일생
에 중요한 저편이 될 것이다. 나
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은 모든 신권과 관계에
는 일이다.

열 여섯 살이 되던 해 내가 다
시 어류 방향으로 점이 가기 전에
제사를 성임되었다. 우리 제사 정
원회가 그 다음 스피커 청해석
을 진행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양부모에서도 내일 내가
있을 청해석을 새로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해석 주도는 여론에 그들에게 청해석을 배운 사람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웃음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 나의 양모는 내
가 다른 사람을 청해석 해도 좋지
그 웃음을 사오겠다고 말해주었고,
나는 그곳에서 이 웃음을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내 동생
첫은 그 때 열 일이었으나 청해
를 받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내가
오기를 기대하라고 말했다. 양모
는 우리 가족 중에서 남녀가 된 사
람을 칭해할 때까지는 어머니도 그
웃을 입어 물리쳤다. 양모
는 어머니에게 내가 가족들에게 칭
해를 주기 전까지는 그 웃을 입어
주지 않기를 바라고까지 말씀하였다.

그리면 여름 양부모님이 방문을
하셔서 장로들을 만나게 하였고, 우리
가정에 이들을 소개시켜, 어머니
와 동생들이 복음에 배우게 되었
다. 그들은 저 칭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었다. 어머니와 동생 멜createView
의 칭해에 결정되었다. 어머
니는 수수께끼 인터넷이므로 레이벤들이 하던 대로 자기
가서 청해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저부의 자매들이 어머니
가 입은 흰 옷을 만들었으며 장로
들이 동생 멜createView에게 칭해복을 가
져다 주었다. 나는 그때까지 보관
해온 칭해복을 털었으며, 우리는
장로를 따라 3킬로미터 면허의 곡으로
올라갔고 다시 숲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지정한 장소는 참으
로 아름답던 곳이었다. 많은 사람
이 칭해에 참석했다. 신교부상
단으로부터 교외 평의회에 이르기
까지 옆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인디언 친척 중에서도 나한 사람
이 있었으나 나를 그들 중에서 조
용해 지켜보았다. 나는 그날
저녁 그곳에서 특별한 느낌을 받
았다.

나는 멜createView의 손을 잡고 몸이 힘
리까지 차는 강 중간까지 걸어
가다. 나는 칭해 기도문을 수
차 헌신하여 얻기하였으므로 실
수를 하지 않았다. “칭해 플레스
톤 위니스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
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
를 칭해하노라. 아멘.” 나는 멜createView
을 물속에 잡고있다. 그는 웃
으면서 말하였다. 나는 그를 강
쪽까지 헤엄치고 있었다. 어머니와
나는 깃발을 하고 강물 중간까지 들
어갔으며, 그곳에서 칭해를 받았다.
어머니는 칭해를 받고 나
서 너무나 기뻐서 나를 끌어안
았으며, 나는 어머니의 쌍에
흘러 펼치는 눈물을 볼 수 있었
다. 이들은 모두 강쪽에서 교회
회원으로부터 확인을 안수받았다.
신교사들은 그 지역에서 레이벤
이 직접 칭해를 배울라는 이들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는
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칭해
받는 모습을 지켜 본 나의 백성과
우리 친척들이 그날을 기억하게
되고 장로들은 나날 준비하게
절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라는
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장로가 될 것이며 신권에도
같 것이다. 나는 언젠가신 신권에
서 결혼하여 나의 가족을 인봉하
게 되길 바란다. 나는 나의 아들
이 신권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이제 신교사들도 나의 아버지에게
도 복음을 가르칠수 있으며, 아버
지는 여름 방학에 내가 다시 내려
가면 칭해를 받게 되겠다고 했다.

신권의 의미에는 행동을 요하는
권능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내가 매일 신권을 사용할 때 내
인생에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능으로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지에 묻으시며,
그것이 내 가족에게 어떤 좋
드는 영향을 미쳐 왔느냐고
문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희망이 보
고할 수 있기에 바란다.
동굴

칼라 워런드

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와 떠나 동굴을 탐색한 적이 있다. 갑작스럽고 무서운 경험이도 기어 나온 것 같아 나는 불을 켜고 갑자기 갑작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 제의를 거절시키고는 불을 켰다. 불을桎梏으로 더 긴 생활을 하기 전에 내 손발로 모래와 벽을 탐지해 보게 하였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내 손을 놓고는 나를 앞으로 끌어 넘어 길을 인도하라고 하였다. 나는 흔자와 두려움이 앞을 막았다. 무서워 벌써, 감 추는 눈물도 흘리면서 나는 아버지의 곁으로 달려가 나의 머리를 그의 가슴에 파묻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걸어 오기를 초유히 서서 기다리고 계셨으므로 나는 두려움과 두하며 앞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벌써 줄을 걷어내고 두려워서 한 걸음 뒤에 두고 나는 쪽으로 빛을 빼앗을 수 있었다.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옷으에 면서 이번에는 혼자 되돌아오라고 하셨다.

자연석의 순식간에 사라졌고 입술이 바짝 빠졌으나 두 번째이므로 겔릴 수 없었다. 나는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이러한 여행을 강요한 아버지가 원망스럽게 여겨졌다. 그 라나 나는 큰 호기심에 사로잡혀 되었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과 장비를 이용하여 탐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새로운 벽을 발견하고 마다 불을 밝혀 나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새로운 느낌이 나며 사로잡혔다. 나는 빛이 들어 오는 곳까지 갔다. 그곳에서 나의 어머니는 기쁨에 찬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렇게 떠나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교훈은 나는 용감하며 혼자서도 동굴을 탐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많은 것을 배운 이제 나는 그 여행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었냐를 알 수 있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며 감찬한 동굴과도 같다. 어린다는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며 항상 앞에 미루어 있으며, 성공에 확신하는 결의를 안고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어린다는 다른 여행자가 알려 주는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암흑의 동굴을 벗어 나갈 수 있다. 어린다는 눈에 나타나는 표면적의 복잡성을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술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어린다는 항상 마음 속에 어린다는 앞에 먼저 걷는 사람이 있으며 그가 한쪽에 기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는 어린다는 모임을 안전히 이끌기 위해서 그곳에 있으며 어린다는 실측할 때 손을 놓아 준다.

워렌드 자매는 미군과 함께 일본에 추문해 있던 아이지를 따라 여행한 경험을 이렇게 썼다.
좋은 습관은 훌륭한 성품을 낳는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운명을 결정지어 준다.

램마워트 엘 스테이플러
심리사도 정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지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6월 휴식에서 스페인, 더블린, 커마이 대관람객인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뿌리고 행동을 거두어 틀립니다. 우리는 행동을 뿌리고 습관을 거두어 들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뿌리고 인물을 거두어 들입니다. 인물을 뿌리고 인물을 거두어 들입니다." (램마워트 엘 스테이플러, 1935년, 845 페이지)

말씀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미사, 훌륭한 사고 방식, 마음의 평안, 의로운 일할라 하겠다는 결단력으로 중단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운명은 하나님의 자녀 중 성서에 자를 위해 우리의 구세주께서 마련하신 해의 왕국을 불리발시는 것입니 다.

우리는 어떤 습관을 선후적으로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록 해서 고상한 인품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인생 행로와 형성해야 할 습관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받았습니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이 항상 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분리시키고 달리 이끄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훌륭한 습관은, 사고가 행동에 선행되어야 하지만, 훌륭한 결심을 갖는 것만으로는 얻지 않게 됩니다. 훌륭한 성품은 일상 생활의 과정에서 개발됩니다. 인물을 채우는 사람이나 시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을 이끌고 인품을 형성해 주는 습관은 혼히 눈에 띄지 않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형성됩니다. 매일의 실천하는 생활에서 얻어 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많아 헹한 골을 하여도 이르렀나 그를 뿌리지 아니하리라” (잠 22: 6)

이런 아이 시절에 훌륭한 습관을 갖도록 가르치면 미래의 기초를 뼈두는 하게 죽어 주는 게 됩니다. 부모로서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시를 통해 이긴 아이의 뜻을 벌할 수 없으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그들이 스스로를 책임질 업정이 이르기까지는 사랑의 편제도 그들을 위함치 못한다는 확신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린이의 첫 8년은 부모가 그들의 훌륭한 습관을 형성시키고 고상한 인품을 개발시킬 수 있 기 전 황폐한 것입니다.

브리간 영 테드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섬실하게 상록도 막고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에 무엇이 놓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나른 습관을 말리 하십시오…” (열교집, 11: 118) 이 권
고란 겐은이나 성인 모두에게 적용될
다.

우리는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항상 알지는 못하나 의로운 행동에는
합과 안전이 따를 때 마련입니다. 우
리의 복음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인
생을 살아 가야 하며 영생을 얻어 올
바른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 가는 과정에서
훌륭한 인격 형성의 승진이 매우 중
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우리는. 우리
가 인생의 가치와 창의적 수활을 거두
이 듯는 것도 바로 그러한 행위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가는 방법이 우리가 잘겠다고 공인
하는 말보다 중요합니다.

마르코가 가르치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모든 승
진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약을
이겨 내며 의로운 장소에 선을 축적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여지는 인
생의 방법이 항상 하나님이주도해 받아
들여지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의 조언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집니다. 그러한 조언은 변화하
지 않으나 점차로 담화하게 그의 자
녀를 위해서는 인생의 옳은 길을 제
시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현명하게 행
동해야 하며 최를 범하지 말아야 할
다. 우리는 약을 지닌 자의 설득
에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을 사용의 사고, 행동, 인격, 성품을 반영해 줍니다. 약물은 하나님의 주
님께서 주신 영적인 신앙, 정직, 온
전, 의료용의 은사를 송사시켜 줍니다.

“약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께서는 그것이 그가 지닌 최선
의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음
나니”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의 초기 예언자였던 레이아
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
다. “인간은 신약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고…”(니
의 2:5)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바람에 따르는 신과 사람의 계약
인 약 중 하나를 밝혀져 있어 있습
다.

약학 속성이 우리의 인품과 인생을
파괴합니다. 처음으로 최에 놓여져
있던 우리의 개인적 독립과 자기결정
이 약화되며,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
르게 됩니다. 영적인 율법을 범하고
영적인 자질을 거부하면 저항력이 감
소됩니다. 결국 우리는 약을 대항할
힘을 잃게 됩니다. 오랫동안 약을
한 사람은 이를 지우지 않으니 자기
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 다시 붙잡고
있는 것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
시오.

우리의 철학에 목표는 자기결정을 가
르는 것이며,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해서 벌어져 하며 자신을 위해서 행
동해야 하며, 거룩한 힘에 의해 인도
되지 않는 사람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람을 벗어내
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의 유효에
굴하지 않고 그가 주장하는 목표를
追随해야 합니다.

승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
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를 가
음이, 사람이 선을 행하면 경로 자
가 상을 얻지 아니하리라.” (교생 58 :28)

이는 누구도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약물
이나 혐이 약점에 빠져 있다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온전한 선을
추구하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모
든 약물 사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타고
대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모
든 약물 사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타고
대여하였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데로 훌륭한 승진이
생각되는 멜로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항력은 곤질간 우주의 형태로 나타
나기도 합니다. 약물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후 이를 극복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 인 도움이 필요합니
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열심히
간절히 배우고 헌신적으로 하루 하루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음을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음을

될 함께 합서
은혜로우신 주

결에 마무리
결에 제시며
유혹을 이기려
찬송가 58장

우리는 성실히 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구세주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유혹을 도와 주신 자
비롭고 친절하시며 사람이 없는 하
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제자
적, 귀중한, 자기 주변 동은 나를 일
로 우리의 생명을 물리치는 것이다. 약한 힘을
물리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나نحن
승진을 정복하고 그의 약성으로부
터 아무런 원주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우리가
약물을 조용히 충분히 풍부스럽게 마시고
하지 않으나 할 때도 생명에
고수조중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이르는 바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훌륭한 자질을 보고 인간
 형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적극 참
여하여 다른 해로운 일을 가해할
가능한 시간의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의 승진은 신앙과 간중에 믿고하
며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심심한 고통과 승진의
의나로 우리 자신의 책임을 알게 하는
경험을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의 제명을 배우고 이를 지키는
으로써 우리는 우리 신앙의 표현이
로움의 길을 개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일상의 생각과 현재의 행동이 영정을 인지에 탑승하는가? 나는 영정의 목표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가?"라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최근에 일어난 노력이란 주님의 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밀로 불분한 것이 아닐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게하고 그 앞으로 정뱡당하게 간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정방당하다면 말한 도덕적 원리와 목적인 순수성을 잃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람들에 의한 영정의 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정한 말은 오늘날 들을 때 매우 낮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 말은 의무, 책임, 영원한 가치에 대한 존중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의료산 행동 경험과 높은 책임감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과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이기적인 탐욕, 주정, 불평이가 가득찬 세상에서 우리는 보다 높은 길에 자신을 세워 돌아야 하며, 우리를 완전한 인격자로 이끌어 줄 성실한 노력, 신의, 정직, 도덕, 기타 여러 훌륭한 성적을 지니고 사신 없는 봉사의 자질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으로 시작하고 영정한 운영으로 끝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운영은 우리의 인격에 의해서 결정되며,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모든 습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격은 부정적인 노력을 이루어집니다.

이레스트 블 린스는 브리간 몬 대학교 총장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격이란...것, 나태한 상태로 이루어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데리로 혹은 경제가의 연구에서 언어를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언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정확함으로써 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정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인물적인 형성 자료를 제공해 주는 훌륭한 습관은 이 세상에서 형성됩니다. 개인에게 요구되는 성장을 국가의 모든 국민이 지닐 때 그 국가는 훌륭한 국가가 됩니다. 개인이 국가가 단 천만인 점에서 선양함이란 단지 악행이 없는 상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럽고 이야기 가능한 모든 것을 사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높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우리 생활의 중심에 올라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그는 모든 길, 정의, 폐쇄 본인입니다. 하나님의 출현이 영원하자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하는 방법으로 행동 표준을 완화하고 약점을 따르는 도덕적이거나 정직한 빈은 없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방법을 개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준 아침이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탁월히 존 표준과 전리는 모든 그의 자녀를 위한 생의 침범 방범을 세워 줄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르기 위해 헌드리의 개인적인 훌륭한 습관은 우리의 인품을 강하게 지켜 주며, 선을 향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며,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안겨 주며, 진정한 만족을 얻게하고 마음속에 평화와 행복을 성 과 수는 것을을 발 성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따라받기 전환해 보고 우리로 성 과가 허위로 이든 주님께서 주신 다음과 같은 확신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면 경도자 자기 삶을 잃지 아니하리라."(요성 58 : 28)

그 모든 것이 첫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룰 수 있다는 결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약속 바리고 훌륭한 습관과 의료운 표준으로 영정을 위한 첫 말씀을 내려줍니다.

나는 훌륭한 습관의 가치와 인간의 생활에서 정확한 만한 이성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드립니다. 우리와 사랑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인간의 삶의 목표를 만드는지 말로 생명하며, 사랑스럽고, 나무가 바리야 하며, 찾고 싶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굽게 하라

베드로에게 준 구세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충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 그의 메시지입니다.

열 뚜레 장로 심이사도 정현회

나는 최근에 탓세 동안 학교에 돌아가 자료 처리 법을 배운 바 있습니다. 다시 학교의 분위기로 되돌아 가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었으며, 그곳에서 인간이 개발해낸 문명의 이기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몇 가지 기호의 점을 줄어 5000킬로미터 밖의 자료를 정리해 내는 강사의 습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최신형 속도 인쇄기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들 따라 하지 않았으나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느 것보다도 성능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작동하기 시작하면 원족에서 오른쪽으로 인쇄가 되며 이렇게 인쇄된 종이의 유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이 한 줄 밑으로 내려 가서 뒷면이 인쇄되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속도와 정확도와 고도의 정밀도 기술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인간이 발명한 이러한 과학 기술을 실현보단서 내가 배운 절로 쉽게 충분 본 기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계는 나의 아버지께서 감독으로 제시하면서 사무 일을 둘던 수동식 구형 기계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 오는 동안 사업계에서만 놀라운 진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발전 과정을 생각해 보는 동안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전이 더 이루어질 것인지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는 주님의 창조적인 진축 과정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창세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필요를 돌봐 주실 자료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우리의 예언자께서 인용하신 구절을 다시 인용하여 드리겠습니다.

"장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요"(시편 24:1)

경전에서 주님께서 의해 발설하실 때 항상 충만하다는 말을 쓰신 사람은 흔히 모르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분이나 절편이란 말은 그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백만 충만하다. 망을 정복하라"(장 1:28)는 그의 완벽한 가르침을 인간이 따르지 못한 테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상에 살기 시작하는 데부터 마르야 할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는 먼저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를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이 주님을 알아 그에 대한 간증을 지닐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유럽 사로부터 "선생님이 여는 문을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라"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제명이 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비 이웃을 비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제명이 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 : 36-40)

구세주의 이 대답으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근본은 중요한 제명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 그 뜻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도록 이계 다시 여러분에게 재확 인해 드리림.

처번째 말씀은 불로소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경험으로 잘 설명될 수 있습니라. 엘마는 백성을 사랑하는 대 체사였으며 구세주가 오시기 150 년 전에 미태록에 살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도 자신의 이름과 똑 같은 이름으로 지어 준 것으로 보아도 아들들은 무척이나 사랑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엘마는 성인이 되어갈 때 따라 아버 지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마라 하는 아들이 또한 밀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여 심히 간악하고 사전에 것은 자가 되었고 또한 말이 많고 백성이들에게 간 어이를 듣려서許多 백성들로 하여금 지가 행하는 음악을 좋아 행하게 하였고, (도사이아서 27 : 8)

그의 아버지는 엘마의 행동을 마우라 이행하여 부지런히 노력을 주님께로 나아가 그가 스스로 자기 행위의 고통을 알 수 있어서 온은 길을 따르게 되도록 표적이 보여 달라고 간언하였습니다. 아 들 엘마의 생애에 놀라운 일이 어려웠으나,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 회계를 원고하였던 것입니다.

이 위반한 시험에 있는 후 엘마는 땅에 쓰러졌으며, 그의 뱀은 이 명예에 그의 경애를 얻었습니다. 그는 바람에 되어 망할 수 없었으며, 혼이 빠져 혼자 서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를 데리고 가 그의 아버지 앞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은 주님의 편에 의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제자 들이 함께 뿔을 모으고 엘마가 다시 헌을 얻을 수 있도록 받아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 답되었습니다. 엘마는 기운을 되찾고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가 나의 뿔을 회복하여 주님의 속죄를 얻었습니다. 보라 내가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신 기이하 게 여기지 말라. 달력이 날여서 막론하고 모든 나라와 죽소와 방인의 민족과 백성이 모두 거듭나 야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거듭나서 타락한 육체의 보상이 의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속죄로야 그의 아들과 라며 되어야 합니다.

“이같이 하여 인간은 새로운 것이 되 나니, 거듭나이 아니면 자는 결단코 하고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도사이아서 27 : 24-26)

엘마의 말은 우리가 주님의 앞에 들여서 본받있는 경험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의 생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잘 증거 해 주었습니다.

개성적인 맛이 아니요 새로운 생활 방법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건에 나오는 흥미로운 인물의 소유자를 다시 예로 들겠습니다.

신약전서는 구세주가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 그와 함께 있던 한 사람에 대해 말해 줍니다. 경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토 베테로다 하는 시온과 그 형제 안드레아 바다에 그들 던지 렇을 것을 보신아 저행하는 여부리라

“달빛에 지사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낮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행가 원그들을 비려 두고 예 수를 쓰다나니” (마태복음 4 : 18-20)

베테로에게는 고기잡이가 세상의 부인을 수 있는 그의 작업이 이었습니다. 여러분에서는 베테로가 처음부터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부인 중 하나를 밝혀야 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베테로는 구세주와의 첫번째에 세상에서 보기 드문 방법으로 개조할 수 있었습니다. 경건은 그가 아고 보와 요한과 함께 세상에서 말리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에게 주어진 위대한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저행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혜길이 빛나며 틀어 빛나게 되어서 거듭났다” (마 17 : 2)

그와 같은 사실은 꾸준한 후에도 구세주는 베테로에게 끝없이 악독과 책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시온아, 시온아, 보라 사단이 밀 깨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칭구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비 민음이 빠져지 않기를 기도하였 노니 너는 둘어진 후 비 형제를 굽게 하라” (두부이복 22 : 31-32)

베테로는 구세주가 인간에게 준 시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험을
보았으나, 이는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보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도 베드로는 그의 개심의 참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를 본 후 구세주가 다시 그들을 떠나고 제자들이 남았을 때 베드로는 먼저 세계의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베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낮이 썰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니 애들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니 대답하되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멀리가 그리하면 염으리라 하시유며 이에 던지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듣 수 없다.”(요 21:3-6)

여기서 구세주는 베드로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인간의 일보다 상위에 있음을 다르게 하시며 구세주는 고라와 세상의 것에 제공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나 그러한 일을 그의 사업에는 제자 가르치는 모범입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구세주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의 사명에 관한 큰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문 베드로에게 이르시며 요한의 아들 사문자 베드로이 사람들보다 나을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르치 주여 그러하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가 가라사대 내 어떤 양을 먹어라(요한복음 21:15)

그런 다음 두세 차례 더 물셨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어라.”(요 21:17)

마침내 베드로는 “너희가 돌아간 후에”라는 말이 개종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언이며, 이것이 곧 구세주의 양을 먹는 일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와의 교심을 통해 오는 우리가 놓은 약속의 참된 가치가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주님을 아는 일이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경문의 시대의 교회 지도자에게 여호와는 이러한 교심의 과정이 다른 형제들의 생활을 균형히 해주고 살아가는 건강한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본 테일러 다양한 형제에게 보다 절차 변화를 주었습니다. 당시 존 테일러 형제는 다른 교회의 특유였으므로, 테일러 형제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는 테일러 형제가 함께 가진 설교 내용을 모두 적어 경전의 내용과 틀리는 것이 없냐니 일이 예의에 보였다. 그는 그 3주 동안이나 우리 교회를 알아 보았으며, 여기서 만족을 얻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일 년 후에 존 테일러 형제는 요한오우주 콜럼버스를 방문하였음으로, 베드로의 기원이 그 마을을 감동하고 있었으며, 슬퍼도 베드로 테일러 형제는 캐나다에서 설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 그러한 소용돌이에 빠져있게 되었습니다. 테일러 형제는 테일러 형제에게 왜 자기가 예언자 오예이가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설명하던 그에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존 테일러 형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말리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놀라若您. 형제님은 캐나다를 떠나시기 전에 요셉 스티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이자, 그가 시작한 이 사업이 진실임을 강하게 증거하였습니다. 형제님이 이처럼 일을 계시와 성령의 은사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은 이러한 일을 계시와 성령의 은사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은 형제님과 함께의 천사가 나의 말씀 신안하더라도 내가 그 것을 믿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리 형제님, 나는 인간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릅니다. 형제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가 나를 하나님의 만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형제님이 지니셨던 것과 같은 감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6개월 전에 참넣었다면 오늘도 참되며, 오예이가 바도 예언자였다면 그는 지금도 예언자있습니다.”(비 에이치 로버즈, 존 테일러의 생애, 북크리스트파사, 1963년, 39-40 página)

말리 테일러 형제는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알리 예언자 오예이를 찾아 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였습니다. 참으로 개종한 존 테일러 형제의 말씀이 말리는 테일러 형제의 삶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네게는 돌아가 후에 비 형제에게 굽게 하라(눅 22:32) 이 세상의 불만한 모든 것은 하물며 우리에게 의로움 안에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마음을 돌리고, 그의 양을 먹어, 충만하리 끊임없이 사랑하고 형제를 굽게 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모두 개심의 참작을 얻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고, 엘리나 베드로나 존 테일러 대판장, 기타 이 경문의 시대의 흥륭했던 지도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위대한 사업을 전함으로 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바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 계시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세주요, 오늘 이 대회를 진행하시는 스페인에서 불멸의 헌신 장로님은 오늘날 지상에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아는 바를 사실대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나의 위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은총이 많은 사람들 영웅으로 만들어 줍니다.

토마스 에든 존슨 장로 십이사도 정회원

*위대한 인물의 영예전당...유명한 미국인의 초상화와 홍보를 장식한 농욕 대학의 주장, 1900년 설립, 5년마다 수명의 새로운 인물을 칭찬함.

김볼 매니저님, 이제 대회가 막마치지 않아 들어서 이 대회에 참석한 사람이나 대회의 진행 과정을 시청하거나 참취한 모든 사람이 브로드의 말씀으로, 마음 속에 깊은 감명을 받아 갑니다.

브로드는 변형의 산에서 놀라운 일을 본 후 예수님께 “주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마 17:4)라고 말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 우리도 모두 이 대회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지속한 은 수행한 영이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어느 날은 출발날 나는 뉴욕의 뱅

함타운 교회에 게스트체스트를 열리는

고가도로 좌석 차를 타고 친구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인

간이 놀라운 기술로 이룩한 고가도로를 타면서 그곳의 명소를 일일이 자

적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양키 스타디움이 눈 앞에 들 어 왔습니다. 내가 소년 시절에 그곳

록 좋아하던 아구 선수들의 본 고향

에 온 것입니다. 짐으로 수천 관중을

베.batrying 놀라운 기술을 발휘하는

선수들 우상으로 끌지 않은 소

년이 없을 것입니다.

겨울이었던 주차장은 덥지 비어 있 었습니다. 관광과 방광장사와 매점원

들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나 그곳에는 아직까지도 빈대비

루드, 루 게리느, 조 디마지오 같은

대선수의 추억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포기를 기록한 그들에 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에 이름이 오름 사물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야구와 같습니다. 우 리는 모두 역할 구조 내부에 우리의 삶의 영향을 줄 침범 지도자를 통해 마련된 자기나무의 위대한 인물의 영 업 전당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

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도

해 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나무의

위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

은 의인적인 정직을이나 세상에 대한 예가

한 만해입니다. 우리가 우리

의 내면의 개인적인 성찰으로 받아들여 존중할 만한 지도자는 우리의 마

을 줄을 위해 인신하고자 하는 의

육으로 뜨겁게 해주고 의무에 대한 복

중을 남성의 근본으로 삼고, 일상생

활의 일을 변형시키 우리에게 되고자 열

망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복건은 인

생관을 갖게 해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담분간은 위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 대상자가 저우자 할 가치 있는 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와 같은 자리에 누군가 지명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군가 지명할까요? 대상자는 많고 경쟁은 치열 합니다.

나는 그 영예 전당에 지상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추천하는 바입니다. 모세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은 주의 계명에 순종하였더라” (모세시 5:5)

아담은 자격을 갖춘 범인입니다.

인내에서 완전하고 의로움 모범을 보인 유의 이름으로 지명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여호음으로 당해당하고 그는 이

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의 중신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신이 높은 배

37
제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초동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이 흘리고" (여 16: 19-20), "네가 앞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제시니라" (여 19: 25) 였도 자그만 갖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사도 바울노가 빛 알려진 사람을 지명한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영혼을 먹이는 단단고 그의 봉사의 생애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모범이었습니. 이 용감한 선교사는 만한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의 능력이 필리라" (롬 1: 16) 바울도 자격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간증은 들는 이의 심금을 울려 줍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이사라 사람들이 임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마리아는 친해 요한, 마리아는 엘리석, 여린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 13-16) 베드로도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살았던 나파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데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면하신 데로 가사 행하였기니" (나파 이일서 3: 7) 분명히 나파이라는 영에 전망에 이르신 이들이 오를 사람입니다.

네가 지명하고 신은 사람이 또 있으면 바로 예수님 요셉 스미스가 그 입니다. 그의 신앙과 믿음과 간증은 그가 카페니 즐겨서 순교를 당하며 가면서 한 말에서도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나는 도살당에 끓여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다. 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이하니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든지 털끝마까지 부끄러운 일이 없다." (교성 135: 4) 그는 그의 외로운 그의 건음을 인용하였습니다. 요셉 스미스도 자격이 있었습니다.

여성 중에서 영광을 지명해 보러 하겠습니까. 첫째 그와 같은 충성심의 고상한 모범을 보인 사람은 못입니다. 진강한 투아들을 염고 비통에
장긴 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을 이는 뜻은 충성심을 가진 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낼 것입니다. "나토 어머니를 뿌어미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떠나가라 그림하라 마을소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라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속하시는 곳에라도 가도 유속하고하십시오. 어머니의 택성이 나의 택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님님이 나의 하님님이 되시리니" (혹 1:16) 뜻의 행위는 그의 말의 순수성을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영애 전당에 오를 만한 이된입니다.

이처럼 전당받는 뜻의 후손 중에서 또 다른 이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까. 요셉과 약혼한 나사렛의 마리아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러나 그녀를 향해은 유일한 택시키는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수림과 역사적인 사명을 나비가 받아드릴 것이 모든 인류에게는 이경표가 되었습니다. "마리야가 가로쓰 주의 제자 중이요 나사렛 말씀대로 내게 이의한 자" (혹 1:38) 확실히 마리아도 자크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들을 영용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묻게 될 수 있습니다. 나와 그것을 전당받는 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구원과 고통한 주제주의의 사람들에 대한 강인하고 대담드립니다. 이러한 지식은 그들의 인생의 전에 왕립신식 수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용들이 복속까지 바쳐가며 성실하게 받아온 영장의 왕인 구수주는 누구일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와 구성주님이며,

예언자들은 그의 오심을 예언하였습니다.

천사들이 그가 지상에 오서서 복음 을 전하면서든 것을 알겠습니다. 둘 판에 있던 복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었습니다.

"우서위 말라 보라 내가 온 택성에 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허브에 너희를 주어 주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누가복음 2:10-11)

바로 이 예수님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쌓추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노라" (눅 2:40) 그는 요단 강에서 첫째 요한으로부터 체제를 받고 복을 갖게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천의 세세와 넘어가지 않고 그를 던리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넘어가지 않고 그를 던리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주신 의무를 깊이 받아들이고 일본을 담고 마음으로 약속을 하고 생명까지 다녔습니다. 이 일마저 떠나지 않고, 사심없고, 고난한 삶이었으니 가!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셨느니. 그는 사랑하고 봉사하셨습니다. 그는 올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가르치고,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심가기에 달려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번에서 일어나서 이상리에 이르셨습니다.

지상에서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인물은 나사렛 예수야말로 영애 전당의 성사를 차지하는 일 분임입니다.

"영애 전당에 오른 영용들을 열례해서 무열하겠느냐"라고 묻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 닿아 그랬듯이 순종하고, 유심히 인하며, 마음으로 가르치고, 페도로 지형 증거되고, 나아가며 복잡하여 예수님 요셉처럼 자신을 바치고, 짐처럼 호도하고, 마리아처럼 영예롭고 그리스도처럼 생활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나가실 됩니다. 모든 천사는 우리와 이름이 짐께 떠나지 않으리라. 모두 편지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넘어갈 때마다 자기들 창구로 나아가며 이와 함께 실망, 의심, 의혹, 반대 등을 물리쳐당합니다. 희망, 신앙, 용기, 기쁨으로 충만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하였습니다. 너무 무거워지고 가지 못할 책임도 없었으나 da. 부담스러울 의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범을 살펴 보면 저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한 가지 놓아 드리겠습니다. 이곳 속트레버지티에는 한 왕도를 관리하는 크레이그 수도사가 건강이 길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엘보론으로 부름을 받아 나가 적전에 어머니와 함께 나의 사무실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크레이그의 부친인 프레드가 이 상하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크레이그의 어머니가 20세 전에 프레드가 정혼하였으나, 프레드는 아내가 지닌 교회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크레이그는 그의 부모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어린가 그들의 아버지가 성행에 강화를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을 희망한 대로 말했습니다.

그는 전식하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상받게 될 수 있는가를 간주하였습니다. 영겁이 벌어졌으며 나는 크레이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마음을 나라에 주어서 우리를 성심으로. 성수러 부름에 순종십시오. 때 부모님께 전지를 쓰고, 기쁨 아버지께 개인의 보낸 전지를 써 형제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전해십시오.

그는 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 후 크레이그의 어머니를 18개월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사무실 찾아와 문을 터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레이그가 선교사로 떠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에 노력하여 선교지에서 중책을 맡아 일쳤으며, 매주 우리에게 전지를 쓰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 우리는 흥분한 쿠도자의 가족에게 구원의 계획과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는 그 왕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저시지 않는 곳이라면 저에게는 해외 왕국이 될 수 없습니다. 전 아버지와 아들이 된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싶습니다. 선택과 일하는 아들 캐리와 올림.

그런 다음 프레드는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제가 헤드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내와 아들 캐리에게 사랑합니다. 결혼 생활 20년만에 나는 교회의 회원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압니다. 나는 이러한 진리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생각하였지만 아들이 교회로 갈 후에 비로소 이것은 행동에 옮길 수 있었음을니다. 나는 아들 캐리가 교회 사업을 마무리 짓고 우리의 왕복 선교사인 그의 미국 청년기자에게 희생을 준비하고 있음을니다.’

행복하다는 생각을 지니긴 한 젊은 선교사가 하나님과 함께 헌신의 기약을 이루었습니다. 극적인 사랑과 사랑과 대화가 갖춰진 그 목표가 아버지와 그 사이를 가로 뚫는 거리의 장벽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기쁨이 불온한 태평양을 넘었으며, 거룩한 대화가 마음에 안 되어 진달 되었습니다.

수면에서 마침 오스트레일리아의 바닷가 같은 풍경에서 오른손을 놓이쳐 들고 다음과 같은 장식도 불리기로 드리는 캐리와처럼 위대한 영광은 없습니다. “프레드 수드베리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때를 치매하노라, 아멘.”

아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신앙, 아들 봉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머니, 아들이 모두 영에 전달에 들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버지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기에 담당하도록 생활합니다.

“나는 너희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죄를 베품으니, 끝까지 의와 진리를 너희 성과는 자를 존중하라 하기를 기뻐하신다.

“저희 성은 불르네,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라.” (교예 76: 5-6)

영원한 영예 전당에서 우리가 설 자리하는 이렇게 할 때 열어질 수 있음이 다. 나사렛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며, 하나님의 중보자이신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중 드림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지식

복음에 대한 간증은 진지한 탑구에서 나오며, 구원은 복음대로 살았을 때 옵니다.

로버트 엘 심슨 장로 십이사도 보조

나는 내가 의도하는 바가 잘못 전달되지 않고, 우리의 대화가 “오라우리가 서로 변론하는지”(사 1:18)로 한 이사아의 권고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모두가 보다 풍성하게 축복을 받게 되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음니다.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의전 말씀에 여러분께 상기시키는 듯합니다. “나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라…”(로마서 1:15-16)
나는 성서의 진리를 알고자 열심히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증거해 줄다는 사실을 약속드립니다.

문제 교회에 자기 교구의 회원을 잃고 있어 외가 닳 어느 신교 목사가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우리 교구에 와서 우리 회원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들은 모두 선행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신들은 이방인들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이에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다시 이 사람에 말씀을 주시고, 중요한 사실과 신령의 권능을 인간에게 풀려 주셨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18,000명에 이르는 학은 남녀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이 말씀에 한 학은 소녀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음니다. 이 모든 사실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구세주의 참된 진술입니다.

바로 이 선교사들은 신령의 두 분이 지상을 다니기 전 후 신령의 권세가 하늘의 자리에 의해서 지상에 왔
복미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친교로써 침례를 배우는 권능인 아론 신전을 회복하는 데 침례 요한명을 희생한 적임자가 있었을까요? 구세주께서 탑달한 권능과 친교로써의 침례의 모범을 보이실 필 요를 느껴서 찾아 간 분이 바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몇주 후 벌기세비 신전을 회복하셨는데, 이 일에 배드로, 야고보, 요한 말씀이 훈련한 직직자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진로 이야기를 나누던 바로 그 제자들이 이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안고 지상에 터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정이 진치의 정임을 선언합니다. 그의 성서력은 목적은 인간의 환상이나 기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서라는 의식은 그의 이름을 지닌 이 교회에서 탑달한 권능을 소유한 자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존귀하는 아우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아 하나님의 부활의 일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히 5:4) 고 한 바울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즉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전의 권 năng은 1829년 봄에 친대 요한명과 배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서 회복되었습니다.

144년 전에 주님의 참된 교회가 재조직된 이래 교회의 회원들은 그들의 희생로 향평을 이웃과 친지와 국민으로 전하고 설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모든 회였는 선교사"라는 말이 이 교회의 구호가 되었으며, 수천 명의 선교사가 자유 세계에서 기울기 보는 모든 사람에게 회복을 선명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영의 일을 비춰 주었습니다.

결리에 귀의할 때 느끼는 기쁨과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점이 없으며, 외계의 침례의 결을 열어 줄 때 용서가 넣는 기적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해 줍니다.

발일의 이 위대한 선교 사업이 진행되는 세계 도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한두 가지 예를 들어 가
미침어려분을세계여행에안내해드릴겠습니다.
두부보다도나는먼저두부모두
심과무죄일행으로가족의유래가
완전히폐진14명의가족을가진남
태평양의어느가정을생각하게되었니
그러나이들도현제는목표가있고
할당한부분이있으며,자녀에대한
큰사람이있고,가족모두가하
나님의신앙에서영원히인봉되어
탄탄한가정을이루고있습니다.장남
과차남 모두선교사로봉사하고
있으며,많은사람에게희망을인
주하며노력하고있습니다.이모든
일은전쟁에따라자살까지도생각할
어머지가19세와20세된두절은
의말에귀를기울이고그들의말을
들었던때에가졌습니다.
 얼마전에나는여행을마칠때가
가까와온한후인지부터다음과
같은간증의이야기를들었습니다.
"나는교도소에서전리를받은후입니다.
여기에서은무 bufsize생각에
점점시간이여유가많습니다.나의
한가지소망은체제받을_REMOVE
주는일입니다.사회에진빛을잡고
고향인미시에서동아리여행을나는사
람들에게이위해한교회를알리겠memcmp
다.”
한반도남태평양상공을나르고있는
비행기에서일어난일에스튜어
티어가와서우리가유유로세바
라이러한것을보고는물론이아
Exchange이었습니다.그렇다고대답하
자그녀는미소를가득담은얼굴로
이렇게말했습니다. "저는이번여행
이끝나는이제캘리포니아여행을돌
가선교사회에때반토론의것으로
향수이여행이있었습니다.저는이제그
토론이참다난사실을알고있었습니
다.”그녀의말은전설했습니다.그
녀는명예를받았습니다.그녀는물
론청년을찾게되었습니다.그들은
아름다운가정을꾸미고생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느험한청년실업자들,소개하
겼습니다.그는이렇게말했습니다.
"우리가족은격식이있을뻔했었습니
다.어미와나의가까워졌고,세가
녀는전이어려워졌습니다.제프
와안젤라는이웃친구들과초등학교
에나가기시작했습니다.그날부터
제주초등학교가있는날우리전지
녀시간은초등학교의전시장이덧
한느낌입니다.무보서우리가그
들의흡용한생각과별도를받기어
려를정도였습니다.그렇습니다.우
리가"이런이야기에이별을 eskimodo’
(사11:6참조)그들은당시시작하였으며,
이제주님의처럼교회에특
한회원으로2년이지난지금우리의
행동목적을이루었다고말할수
있습니다.우리가족은물론을알기
전까지는가족의유해와정한행복
이파편어려운것이있던모토하고
있었습니다.
남이의이게나라에살고있는한
여인이물론선교사들의선진에감
화를받아그들을견에초래하여가
족들을تنا가게주신하였습니다.그러
나블랙하게나님은번호박한반응을
보였으며,edral가라는작물문
에붙어동해그들을보지도말고되
들어비었습니다.그녀는주남께서
중계해주시도록금곡하고기도하였습니
don.그런일이있었던지6주만에
남편은비용에만흡용한두_patches
모를해어내에게알려주었습니다.
그는그들이전하는예시자를가
족과함께나우기로하고그들을조
청하였습니다.여러겠습니다가두여
정해를받았습니다.아내는전에자기
가남편에게소개하려고했던두절
은이비로그두선교사였다는사
실을청소를받은후예할때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오묘한방
법으로그의일을 이루습니다.”(전송
가200장참조)

 대부분의사람들이물론은행복한
사람들이,안경된사람들이,현
실적인사람이라고말합니다.물론
은밀율스럽고,전진한사람들입니
다.그러나나는이것까지도"그렇지
안순해하지 않은물론도있어요.
라고말하시는분이있다고생각합니
다.나는말일여행끝에서잘못을범
하는물론을알고게시하더라도그
이들의가르침때문에아니라는점을
간주드립니다.그것은교회의가르침
때문에어것이아니며,우리가가
로회하게되기를우선합니다.많은것
이주어졌을때많은것이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나를시험해보라’고
하셨습니다.여러분이많은문제로
어려움을당하다,그것을극복해내
든나는여러분의인생이힘 potrà
수그리스도의복음안에서순수하고
영원한생각을얻을수있는점
을명명히선언하는바입니다.

교회의전립됨을알아보기위해
구제주의방법을왜사용하지못하고
있습니까?나는늘이자리에서
2000년전에구제주가선언한 말씀을
나의간중으로드림니다.

_BUS운은너것이아니요나를
보내신이의것이입니다.

“ 사람이하나님의뜻을행혀하
면이교회가하나님계셔서왔는지
내가스스로발안인지알리라”(요한
복음7:16-17)

 나는은정성을따라여러분의
행상과가족의구원이하나님의예언
자인요셉스미스의생전에이어났던
일에착수한느사실을선언하는바
입니다.여러분에서그것이무엇인지
를알게되기를주예수그리스도
의이름으로결신히기보다드립니다.

 야목.□
사탄을 이기는 권세

적을 대항하기 위해 성신의 동반을 구함

엘레이 엘 크리스찬손 장로 십이사도 보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과거 경찰의 시대와 이 떼일의 경찰의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 나타내진 진리를 알게 된 때 때에 과도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원, 현세, 육성에 관한 충만한 진리를 축복으로 받아 받고 있음을.

경련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살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변천에서 살았을

나 사악한 힘을 갖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유혹하고 있음을.

여호와에 의해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이를 행상함으로써 그가 강해지고, 악을 극복하고 우호를 이어 내어 지혜와 의로움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삶에 험한 땅을 만들자.”(아브라함서 3:24-25)

이제 하나님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사탄이 모방하여 나 주 하나님의 사망에 이미 부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물어하였고, 나의 권능을 자기에게 줄 것을 구하였으므로 저는 나의 독생자의 믿음으로써 너희들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에 저가 사탄이 되었니, 참으로 약마오, 모든 거짓의 아비라, 인간을 미혹케 하며, 나의 은혜의 귀를 기울여서는 많은 자들의 자비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 (모세서 4:3-4)

그러니 사탄이 살아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참으로 영의 형제를 취한 사탄의 위용을 폭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해롤드 빌리버진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갉지 말겠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보자는 마십시오. 사탄은 창세 때부터 그의 무리들과 함께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아 무모한 싸움을 벌여 왔습니다.” 약마란
없다고 가르쳐거나 엎에 질린 사람의 활성으로 나타나는 허케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힘을 발휘할까요? 그의 손책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의 간단한 지혜와 독특한 성격과 완벽한 견해를 통해 그를 따르는 영의 자녀가 작고, 그의 약한 방법에 극한으로 여호와와 그의 추종자에게 전쟁이 일으키려는 인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인물들은 원하지나 한다면 언제나 하느님과 그의 사업에 반기를 들도록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경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사람들은 저들을 선동하여 저희 영혼을 밝혔기로 인도하려 합니다.” (교생 10:22)

“참으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를 뮬링시키기 위하여 죽음을 쓰고, 잠복하여 의무, 보다, 이것은 아무런 해도 없 JetBrains

“이같이 사탄은 저들을 금어 설로 퍼져 인도해 나가며 드리어는 저희 영혼을 짓밟으며 떠들어 버리나 이같이 사탄은 자기가 할만큼 스스로 빚게 하느님.”

“이같이 사탄은 인간의 영혼을 밝혀지고 이를 세상을 여기 저기 돌아다니느니라.” (교과 11:20-27)

사탄은 작은 것과 작은 그대로 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진다든 것을 알고 있으며, 처음에는 우리의 제미에 작은 것잡을 하게 하고,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하며, 수여기나 도독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의 왕국으로 끌어 들입니다. 안식일을 성서렇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유혹에 빠져 그것이 풀익된 것도 사탄입니다. 마약, 독살, 부모에 대한 불신증, 동료에 대한 속임수 등은 사람들이 우리를 정상의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사용하는 방법인 데. 그는 우리가 그런 상태를 지속할 수 큰 것을 짓게 되어 오랜 후회, 비통, 속죄를 마다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가장 아까워한 몇 의 하나가 부정이라는 데입니다. 인간을 세상에 내보내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며, 그 힘은 보호하고 성서렇게 지켜질 때 충 향할 것 없는 행복과 축복을 맛보 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납득되지 어려워지면 습품, 비참, 자책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교회의 대판단들은 몇 년 전에 부정하는 가통음료의 돈을 지지르면 말뿐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교리는 남녀의 부정한 관계적인 돈을 그 사악함에 있어서 삼인 마음가는 큰 돈으로 보며,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돈을 벌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형벌과 심판을 당할 수 없음입니다. 네가 지나던 빚이 오랫 심판의 날이 빠르게 되어오니 오래 됩니다.” (처치 뉴스, 1952년 2월 13일 자 16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악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탄은 아무리 기습을 부리려도 범법자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만 힘을 쓸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흥행으로 의지함으로써 사람들은 사라 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희생은 성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성신이 우리의 내부에 있을 때 사탄을 끌어치킬 수 없으셔다.

드刑事案件, 기도, 주님의 제명에 따른생성형생활, 교회의 책임이 행정이 온라인 이익이 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밖 프로그램 환경 등은 화평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성신을 함양하는 동반자로 보호자로 갖게 해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 특히 청소년들이 오늘날 유혹을 받고 있는 방법을 알고 몬서클을 지정으로 올았습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들을 둘게 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선택된 영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요. 행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만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탄의 몸에 넘어져도 부모, 선생 지도자, 교사는 그들을 회 .'</dd>
귀로 들고
눈으로 들고
마음으로 들어서

환 인 상

우리 교회에는 살아가는 예언자가 계셨습니다. 지금 대관령으로 교회를 안도하시는 스파르타 달볼 길봉 대관령님은 우리 교회의 일 뿐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입니다. 이로써서 가족의 바람을 듣거나, 마주치는 고난을 극복하며 하시고 계신 덕으로 그 힘에 따라 뒤틀리며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힘들었습니다. 때때로 이 같은 존재의 시대에 목을 떨어지며 침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시 세우셨던 그리스도의 종 모음 스파르타 달봉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안도하신 예언자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음의 지침을 여러 형태로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큰 홍수에 빠져서 노아의 방향의 음성이었고 전국이 가카했음을 알리며 물의 잔해를 배출한 찬 대 오먼의 화면을 복원하던 음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대한 시간에 잃어버리면 사악이 전해진 것으로 하느님이라는 불볕을 벌어 지물을 풀도록 향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때에 오케이 향하나 끝에 빛이 밝아지지 않았고, 빛에 불변된 사람이 이를 헤아 놓기만 하면 멋지게 보이다고 하셨습니다. 흑백 혼합의 벗은 이 세상의 복음의 빛을 알리듯.

자신의 손으론, 주님의 시대에 이룬 희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를 안도하시는 예언자의 가르침과 지시에 따르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멍망에 적은 시선과 현상을 이루며 살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우리들에게:
가정의 강속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족 예방 프로그램을 1937년부터 지시했습니다.
개척 4대 프로그램을 권었습니다.
모든 희망은 선교사라고 하시며 선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의 약속 규칙적으로 가지며 가족 기도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순결의 법복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항복한 가정의 소년이 왕복하고 하시며 유태한 태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상황을 열악해 하고 긍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경험을 참복하고 특별한 품성을 참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열망이란의 독을 넘어 더욱 더욱 반지하라. 그리고 열심히 말하고 하셨습니다.
이제도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항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경고와 지시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또 교회의 강행들을 통하여 깊이로 했습니다. 살아가는 예언자를 모시고 있는 젊은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교회의 강행들을 통하여 깊이로 했습니다. 살아가는 예언자를 모시하고 있는 젊은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교회의 강행들을 통하여 깊이로 했습니다. 살아가는 예언자를 모시고 있는 젊은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교회의 강행들을 통하여 깊이로 했습니다.
바람에 "주여 세계 무순 일 을 시켜시겠느냐?"라고 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을 바로 그 답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일보다 더 흥미로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위천한 백성이 갖춘 분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태 외면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와 가깝게 될 수 있나를 보면 된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천한 사람이며,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가장 잘 사랑한 사람이다.

예즈라 펜드 벤슨
심어사도 정현회
10월례회.